

# 인문학 분야의 인용 데이터정보원 비교 분석: 네이버 전문정보, KCI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umanities Citation Tools: NAVER Scholar and KCI

박상근 (Sang-Keun Park)\*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분야를 대상으로 인용DB간 구축 정보를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축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용정보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의 하나인 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네이버와 KCI에서 국내학술논문을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KCI가 네이버보다 좀 더 정확한 인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각 인용DB간 차이의 원인은 수록범위의 불완전성, 서지정보의 오류, 참고문헌 구축의 불완전성, 링크와 관련된 오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두 인용DB 모두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양자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인문학 분야에서 더욱 완전한 인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KCI and Naver Scholar as citation analysis tools. Four subcategories in the humanities category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The recall of Naver Scholar was 64%(2,227 times) and the KCI's was 77%(2,665 time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results at the individual article level or the subcategory level, but the gaps were not significant. Therefore, researchers who analyze citations are urged to use both databases because neither of them are complete, but supplementary to each other.

키워드: 인용분석, 인용색인, 인용 데이터베이스, 인문학, 네이버, 한국학술지인용색인  
citation analysis, citation index, citation database, humanities, NAVER, KCI

---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angkun39@snu.ac.kr)

■ 논문접수일자: 2013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3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30(1), 33-50,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33]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인용정보는 연구업적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거나 학제간의 관계나 특정 주제 분야의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교원이나 연구자의 심사, 연구비 신청과 지원, 저널의 평가와 구독여부 등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평가나 전문가의 평가와 더불어 인용정보에 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자 평가(이종욱, 양기덕, 2011), 저널 평가(김판준, 이재운, 2010; 이재운, 2011), 정보서비스(이정연, 유소영, 이재운, 2011), 이용자 연구(Choi, et al., 2011; Kim, et al., 2011)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대표적 인용DB는 KCI, KSCI, KoMCI, 그리고 최근 등장한 NAVER 전문정보의 인용정보서비스(이하 '네이버')를 들 수 있다. 이들 인용DB는 구축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일부 학문 분야를 제외하고 구축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구축된 인용정보는 인용DB에 따라 구축 자원의 대상과 범위, 구축기간, 학문분류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네이버의 경우 KCI의 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인용정보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KCI와 구축 대상과 범위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각 인용DB에 따라 동일 논문임에도 다른 인용빈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인용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동일논문의 인용빈도가 인용DB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경우, 어떤 정보원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정보원으로서 인용DB 구축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느 한 논문에 대하여 여러 인용DB 중 특정한 인용DB가 더 높은 인용 값을 나타낸다면, 그 인용DB는 다른 인용DB에 비해 구축된 인용정보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용정보원으로서 선택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분야를 대상으로 인용DB간 구축 정보를 비교하고 인용DB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축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Levine-Clarka와 Gil(2008)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네이버와 KCI에서 인용정보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의 하나인 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국내학술논문을 비교하였다.

### 1.2 선행연구

인용DB간의 차이로 인해 인용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비교분석하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새로운 인용DB가 등장하는 경우 기존의 인용DB와 비교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국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적인 인용색인인 Web of Science(WoS)와 이후 등장한 Scopus,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Google Scholar(이하 'GS')와의 비교를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인용DB가 기존의 인용DB를 대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Noruzi(2005)와 Pauly과 Stergiou(2005)는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Noruzi는 GS는 "전통적 인용 색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업DB를 보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Pauly와 Stergiou 또한 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11개 학문의 학제간 인용을 비교한 결과 WoS의 대체로서 GS를 추천하였다. 반면 Jasco(2006)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Jasco는 GS는 학술적 자료에 더하여 비학술적 정보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WoS는 특히 학술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WoS는 절제된 측면이 있고, GS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즉 WoS는 GS보다 검증된 정보원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WoS는 GS로 대체될 수 없고, 검증된 WoS와 검증되지 않은 GS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각 인용DB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Bauer와 Bakkalbasi(2005)는 WoS의 경우 오래된 자료를 포함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반면에, GS는 다른 DB보다 근래의 자료를 포함하며 이러한 부분에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Levine-Clarka와 Gil(2008)은 WoS, Scopus와 GS의 인용횟수를 비교한 결과 GS는 수록학술지도 많으며, 비학술적인 자료까지도 구축하여 인용횟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과장된 것이 아니며, 블로그, 웹사이트 등과 같이 비학술적 자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논문들 또한 학술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GS는 인용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가치가 있고, 좀 더 완전한 다른 정보원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외의 연구흐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새롭게 등장한 네이버의 인용정보를 통해 기존의 인용DB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내의 새로운 인용

DB인 네이버와 기존의 인용DB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수행된 것이 없다.

## 2. 연구설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Levine-Clarka와 Gil(2008)의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Levine-Clarka와 Gil은 도구로서 IF의 가치에 의문을 갖고, 경제학 분야를 대상으로 JCR의 2005년 IF값 기준 상위 5개, 하위 5개의 학술지 그리고 Elsevier ScienceDirect에서 IF값이 없는 학술지 5개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택된 학술지에서 특정분기 ScienceDirect's "Top 25 Hottest Articles"에 랭크된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조사대상 인용DB에서 인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으로서 인용DB간 구축 정보의 차이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IF값을 제공하지 않는 네이버의 특성을 고려하여, IF값 대신 피인용횟수를 측정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수집 및 분석의 세부방법은 각 인용DB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인용DB 현황

인용정보의 수집, 분석기간은 2012년 11월~2013년 1월이고 각 DB의 인용정보 구축 현황은 <표 1>과 같다.

제공하는 인용정보는 KCI는 2001년~2011년 출판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횟수, 영향

〈표 1〉 인용DB별 인용정보 구축 현황

구분	KCI	네이버 전문정보
구축범위	2001년~2011년	KCI 등재/후보지 수록 논문 10년 치에 포함된 참고문헌
구축분야	인문, 사회, 과학, 의학	인문과학
수록학술지	등재 5,318종 / 후보 2,100종	등재 / 후보 4,946종
인문학	513종 / 108,973권(학술지)	4,947종 / 1,335,557권(학위논문포함)
인용횟수 산정기간	직전 2년, 3년, 4년 동안(2004년~2009년)	1년, 3년, 5년, 전체(2001년~2010년)
제공정보 (인용지수)	피인용횟수, 총논문수, 영향력지수, 즉시성지수, 자기인용제외 지수	인용된 횟수, 발표논문수, 자기인용

※ KCI-2012.11.30. 검색(2011.3.28. 기준자료임) / 네이버-2012.11.30. 검색

력지수, 즉시성지수, 자기인용제외 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네이버는 KCI 등재/후보지 수록 논문 10년 치에 포함된 참고문헌, 즉 2001년~2011년에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용된 횟수, 자기인용, 학제간 인용현황, 참고문헌 형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 선택한 참고문헌을 인용한 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KCI와 다른 점은 학술지 이외에 학위논문, 단행본 등의 문헌도 포함된 것이다. 수록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KCI는 수록 학술지 종수, 수록논문 수, 총 피인용횟수를 표로 제공하고 다양한 조건의 검색을 제공하여 수록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수록 학술지 종수, 수록논문 수, 총 피인용횟수를 가나다순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수록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 2.2 하위 주제 분야 선정

인문학 분야의 하위 주제 분류는 KCI가 30개, 네이버가 24개로 분류하고 있었다. 각 인용DB에서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는 22개의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피인용횟수 기준 상위 5개 주제 분야를 각각의 DB에서 선정하였다. KCI에

서는 “통계” 메뉴의 “학술지인용통계”에서 제공하는 주제 분야별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연도별 피인용횟수를 기준으로 결과 값을 합산하여 선정하였다.

네이버에서는 주제 분야별 피인용횟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없어 인문학분야의 하위주제를 각각 클릭하여 나타난 피인용횟수를 확인하였다. 사이트 내에서 해당 주제를 클릭하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라는 항목을 제시하는데 이들 학술지의 피인용횟수를 합산하여 선정하였다.

선택된 주제 분야 중 각 인용DB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제 분야 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2〉와 같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제 분야는 서로 공통되지 않은 철학과 문학을 제외하고 국어국문학(한국어외문학), 역사학, 언어학, 영어영문학(영어외문학)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KCI의 경우 원래 인용순위 5위에 “기타인문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타인문학”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록되는 저널 또한 네이버와 차이가 많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6위에 있는 “영어외문학”(영어영문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조사대상 주제 분야 선정결과

순위	KCI	네이버	비고
1	한국어와 문학	국어 국문학	국어국문학으로 명칭 통일
2	역사학	언어학	
3	철학	역사학	
4	언어학	문학	
5	영어와 문학	영어 영문학	영어영문학으로 명칭 통일

### 2.3 학술지 선정

선정된 4개의 주제 분야에서 피인용횟수 기준 상위 5개 학술지를 각각의 인용DB에서 선정하였다. KCI에서는 “인용정보” 메뉴에서 “학술지 주제 분류별 인용지수 보기”를 선택하여 “총 피인용횟수”를 검색하였다. 현재 KCI는 2004년~2009년의 학술지 인용정보를 각각의 기준년도 별로 제공하고 있어, 학술지의 총 피인용횟수는 〈표 3〉과 같이 2010년 기준 4년간('06년~'09년), 2009년 기준 4년간('05년~'08년), 2008년 기준 4년간의 피인용횟수('04년~'07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표 3〉 KCI 수록 학술지 총 피인용 횟수 산출 기준

기준년도 \ 산출연도	'04	'05	'06	'07	'08	'09
	'10 피인용횟수			○	○	○
'09 피인용횟수		○	○	○	○	
'08 피인용횟수	○	○	○	○		

네이버는 수록 학술지 목록을 가나다순으로만 제공하여 학술지의 수록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학술지의 선정은 각 주제 분야에서 “학술지” 탭을 클릭하여 나타난 학술지명, 피인용

횟수 등의 정보를 엑셀로 수작업으로 입력 후 각각의 피인용횟수를 합산하여 선정하였다. 조사 중 수록 학술지가 중복 구축된 경우 수록논문이 많거나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 1개를 선택하였다.

선정된 학술지 중 “민족문화사연구”의 경우 KCI에서는 ‘한국어외문학’(국어국문학)으로 네이버에서는 ‘역사학’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었다. 학회성격 및 좀 더 검증된 KCI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한국어외문학”(국어국문학)으로 분류하였다.

### 2.4 논문 선정

KCI는 2001년 이후 출판된 논문을 수록했다고 되어 있지만, 2003년도 이후 논문부터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네이버는 2000년도 이전의 논문도 검색되며, 이들 논문도 피인용횟수 산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정한 인용DB의 비교를 위해 KCI와 네이버 중 어느 한 DB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KCI에서는 “인용정보” 메뉴에서 “논문별 인용지수 보기” 항목을 선택한 후 조사대상 학술지를 검색하여 피인용횟수 기준 상위 5개 논문을 선택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5회 이상 인용된 논문만을 목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학술지(현대문법연구, 안과밖: 영미문학연구)의 경우 5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적어 검색된 논문이 5개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검색된 논문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네이버에서는 전문정보 검색 창에서 “인용문헌”을 선택한 후 조사대상학술지 제목을 입력하

〈표 4〉 조사 대상 학술지 및 논문

국어국문학			역사학			언어학			영문학		
학술지	논문	선정DB	학술지	논문	선정DB	학술지	논문	선정DB	학술지	논문	선정DB
10	76	1,514 (피인용)	8	68	758 (피인용)	6	43	620 (피인용)	8	61	579 (피인용)
국어교육학 연구	6	KCI	역사와현실	9	KCI	이중언어학	7	KCI 네이버	영어교육	9	KCI
한국어교육	7	KCI	역사비평	8	KCI	텍스트 언어학	6	KCI 네이버	영어어문 교육	7	KCI
어문연구	8	KCI	한국사연구	9	KCI	언어과학 연구	7	KCI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0	KCI
민족문화사 연구	7	KCI	역사학보	7	KCI	사회언어학	8	KCI 네이버	현대문법 연구	8	KCI 네이버
상허학보	8	KCI	한국사학보	9	KCI 네이버	언어	9	KCI 네이버	현대영어 영문학	7	KCI 네이버
국어학	7	네이버	진단학보	9	네이버	어학연구	6	네이버	영어영문학	9	네이버
국어국문학	8	네이버	동방학지	8	네이버	-	-	-	안과밖:영 미문학연구	6	네이버
한글	8	네이버	대동문화 연구	9	네이버	-	-	-	현대영미 소설	5	네이버
한국한문학 연구	8	네이버	-	-	-	-	-	-	-	-	-
어문학	9	네이버	-	-	-	-	-	-	-	-	-

합계: 학술지: 32종 / 조사 대상 논문: 248건 / 조사 대상 논문을 인용한 논문 3,471건

었다. 검색 옵션인 피인용횟수 산출 기간 설정은 인용DB간 수록 범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으로 제한하였고,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나타난 상위 5개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저널과 논문 수는 〈표 4〉와 같다.

### 2.5 자료 조사

선정결과 학술지는 32종, 조사 대상 논문은 248건이며, 이들 논문을 인용한 논문은 3,471건이었다. 자료의 조사는 우선 248개의 조사 대상 논문 제목을 각 인용DB의 검색창에 입력하고, 나타나는 인용정보를 엑셀에 기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인용정보 수집항목은 조사 대상 논

문의 피인용횟수, 발행연도, 발행기관, 학술지 권·호 정보, 참고문헌 그리고 피인용 논문의 제목이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인용DB간 인용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세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인용DB간 인용빈도 비교 및 분석

### 3.1 인용DB간 인용빈도 비교

조사대상 논문의 인용빈도를 각 인용DB가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어느 한 DB에서 확인된 피인용 논문과 해당 DB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대 DB에서는 확인되는 피인용 논문의 합을 조사 대상 논문의 총 피인용횟수로 설정하고 조사 대상 논문의 피인용횟수를 총 피인용횟수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 값을 피인용횟수 재현율이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논문별로 조사한 데이터를 학술지별, 주제 분야별로 종합하여 표로 작성하였으며 측정결과가 높은 항목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표 5>에서 주제별 피인용 논문의 합

은 KCI 2,665건, 네이버 2,227건이고 누락논문의 합은 KCI 806건, 네이버 1,244건이다. 인문학분야의 피인용횟수 재현율은 KCI 77%, 네이버 64%로 KCI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주제 분야별로는 역사학, 언어학, 영문학 분야는 KCI, 국어국문학 분야는 네이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1 국어국문학

<표 6>과 같이 국어국문학 분야 전체 피인용횟수 재현율은 KCI 69%, 네이버 73%로 네이

<표 5> 주제 분야별 피인용횟수 재현율

주제 분야	① 피인용논문		② 누락논문		총피인용횟수 ①+②
	KCI	네이버	KCI	네이버	
국어국문학	1,046(69%)	<b>1,099(73%)</b>	468(31%)	415(27%)	1,514(100%)
역사학	<b>626(83%)</b>	397(52%)	132(17%)	<b>361(48%)</b>	758(100%)
언어학	<b>488(79%)</b>	423(68%)	132(21%)	<b>197(32%)</b>	620(100%)
영문학	<b>505(87%)</b>	308(53%)	74(13%)	<b>271(47%)</b>	579(100%)
합계	<b>2,665(77%)</b>	2,227(64%)	806(23%)	<b>1,244(36%)</b>	3,471(100%)

<표 6>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지별 피인용횟수 재현율

학술지	① 피인용논문		② 누락논문		총피인용횟수 ①+②
	KCI	네이버	KCI	네이버	
국어교육학연구	<b>145(71%)</b>	144(70%)	60(29%)	<b>61(30%)</b>	205(100%)
한국어교육	219(59%)	<b>298(81%)</b>	<b>150(41%)</b>	71(19%)	369(100%)
어문연구	<b>81(75%)</b>	78(72%)	27(25%)	<b>30(28%)</b>	108(100%)
민족문학사연구	<b>96(80%)</b>	84(70%)	24(20%)	<b>36(30%)</b>	120(100%)
상허학보	<b>82(87%)</b>	54(57%)	12(13%)	<b>40(43%)</b>	94(100%)
국어학	117(58%)	<b>154(77%)</b>	<b>84(42%)</b>	47(23%)	201(100%)
국어국문학	<b>74(81%)</b>	67(74%)	17(19%)	<b>24(26%)</b>	91(100%)
한글	81(64%)	<b>101(80%)</b>	<b>45(36%)</b>	25(20%)	126(100%)
한국한문학연구	<b>71(75%)</b>	52(55%)	24(25%)	<b>43(45%)</b>	95(100%)
어문학	<b>80(76%)</b>	67(64%)	25(24%)	<b>38(36%)</b>	105(100%)
합계	1,046(69%)	<b>1,099(73%)</b>	468(31%)	415(27%)	1,514(100%)

비가 높았다. 그러나 피인용횟수 재현율이 높은 학술지는 KCI 7종, 네이버 3종으로 KCI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1.2 역사학

역사학 분야의 피인용횟수 재현율의 합은 KCI 83%, 네이버 52%로 KC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 학술지 모두 KCI가 높게 나타났다. 학술지별 세부 현황은 <표 7>과 같다.

### 3.1.3 언어학

언어학 분야 전체 피인용횟수 재현율의 합은 KCI 79%, 네이버 68%로 KC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인용횟수 재현율이 높은 학술지도 KCI 4종, 네이버 2종으로 KCI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세부 현황은 <표 8>과 같다.

### 3.1.4 영문학

영문학 분야 전체 피인용횟수 재현율의 합은 KCI 87%, 네이버 53%로 KC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인용횟수 재현율이 높은 학술지도 KCI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CI 7건). 나머지 1건 '현대영미소설'의 경우 각 인용DB의 재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세부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7> 역사학 분야 학술지별 피인용횟수 재현율

학술지	① 피인용논문		② 누락논문		총피인용횟수 ①+②
	KCI	네이버	KCI	네이버	
역사와 현실	81(91%)	43(48%)	8(9%)	46(52%)	89(100%)
역사비평	70(92%)	36(47%)	6(8%)	40(53%)	76(100%)
한국사연구	72(88%)	49(60%)	10(12%)	33(40%)	82(100%)
역사학보	74(88%)	31(37%)	10(12%)	53(63%)	84(100%)
한국사학보	67(92%)	29(40%)	6(8%)	44(60%)	73(100%)
진단학보	80(86%)	56(67%)	13(14%)	37(40%)	93(100%)
동방학지	68(72%)	51(54%)	26(28%)	43(46%)	94(100%)
대동문화연구	114(68%)	102(61%)	53(32%)	65(39%)	167(100%)
합 계	626(83%)	397(52%)	132(17%)	361(48%)	758(100%)

<표 8> 언어학 분야 학술지별 피인용횟수 재현율

학술지	① 피인용논문		② 누락논문		총피인용횟수 ①+②
	KCI	네이버	KCI	네이버	
이중언어학	172(77%)	141(64%)	50(23%)	81(36%)	222(100%)
텍스트언어학	77(93%)	53(64%)	6(7%)	30(36%)	83(100%)
언어과학연구	69(87%)	52(66%)	10(13%)	27(34%)	79(100%)
사회언어학	75(73%)	83(81%)	28(27%)	20(19%)	103(100%)
언어	59(89%)	42(64%)	7(11%)	24(36%)	66(100%)
어학연구	36(54%)	52(78%)	31(46%)	15(22%)	67(100%)
합계	488(79%)	423(68%)	132(21%)	197(32%)	620(100%)

〈표 9〉 영문학 분야 학술지별 피인용횟수 재현율

학술지	① 피인용논문		② 누락논문		총피인용횟수 ①+②
	KCI	네이버	KCI	네이버	
영어교육	185(92%)	83(41%)	17(8%)	119(59%)	202(100%)
영어어문교육	72(92%)	36(46%)	6(8%)	42(54%)	78(100%)
멀티미디어언어교육	82(78%)	64(61%)	23(22%)	41(39%)	105(100%)
현대문법연구	38(100%)	16(42%)	0(0%)	22(58%)	38(100%)
현대영어영문학	45(82%)	37(67%)	10(18%)	18(33%)	55(100%)
영어영문학	51(81%)	48(76%)	12(19%)	15(24%)	63(100%)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19(79%)	11(46%)	5(21%)	13(54%)	24(100%)
현대영미소설	13(93%)	13(93%)	1(7%)	1(7%)	14(100%)
합계	505(87%)	308(53%)	74(13%)	271(47%)	579(100%)

### 3.2 인용DB간 인용빈도 차이 분석

동일논문에 대해서 인용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논문의 서지사항과 참고문헌을 각각의 인용DB에서 확인하였다. 서지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Riss, DBPIA, KISS 등의 학술DB에서 해당 논문의 정확한 서지정보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정보도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문을 입수하여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구축이 불완전한 경우 원문의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참고문헌의 충수를 파악하고 각 인용DB의 참고문헌 기입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크게 5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구분 유형은 '논문정보 미수록, 인용산출누락, 참고문헌 미구축, 참고문헌 구축 오류, 기타'이다. '논문정보 미수록'은 해당학술지 또는 논문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이고, '인용산출누락'은 피인용 논문의 참고문헌에는 인용한 논문의 서지사항이 입력되어 있지만 링크오류 등으로 산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참고문헌 미구축'은 인용한 논문의 참고문헌 자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 구축 오류'는 참고문헌 일부가 누락되거나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각 유형별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유형별 참고문헌 누락 현황

(단위: 건)	합계		국어국문학		역사학		언어학		영문학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논문정보 미수록	120	147	68	55	22	37	22	30	8	25
인용산출누락	502	172	282	24	103	29	68	10	49	109
참고문헌 미구축	162	898	103	320	6	293	39	151	14	134
참고문헌구축오류	21	19	15	11	0	2	3	3	3	3
기 타	1	8	0	5	1	0	0	3	0	0
합 계	806	1,244	468	415	132	361	132	197	74	271

### 3.2.1 국어국문학

#### 1) 논문정보 미수록

KCI 68건 중 67건은 수록학술지의 일부 호 누락, 1건은 KCI 미등재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55건 중 46건은 수록저널의 일부 호 누락, 9건은 학술지 미수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용산출누락

KCI 282건 중 269건은 2007년 이전 논문, 13건은 2008년 이후 논문이었다. 네이버는 24건 모두 2008년 이후 논문이었다.

#### 3) 참고문헌 미구축

KCI는 103건 모두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고, 네이버는 320건 중 264건은 참고문헌 미입력, 나머지 56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로 전부 2008년도 이후의 논문이었다.

#### 4) 참고문헌 구축 오류

KCI 15건 중 11건은 참고문헌 일부 누락, 3건은 동일 제목의 다른 문헌과 연결, 1건은 원문 자체 참고문헌 오류기입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11건 중 9건은 참고문헌 일부 누락, 1건은 원문 자체 참고문헌 오류기입, 나머지 1건은 참고문헌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 5) 기타

네이버의 5건 모두 조사대상 논문의 인용정보가 각각 2건으로 구축되었지만 검색으로는 1건만 검색되는 경우였다.

국어국문학 분야의 인용빈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KCI의 경우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 참고문헌 미구축, 논문정보 미수록 순이고, 네이버는 참고문헌 미구축, 2008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미구축과 논문정보 미수록, 인용산출누락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구축 및 기타오류는 일부 발견되었다.

### 3.2.2 역사학

#### 1) 논문정보 미수록

KCI는 22건 모두 수록저널의 일부호가 누락된 것이고, 네이버는 37건 중 35건이 수록학술지의 일부 호 누락, 2건은 학술지 자체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였다.

#### 2) 인용산출누락

KCI 103건 중 91건은 2007년 이전 논문, 12건은 2008년 이후 논문이었다. 네이버는 29건 모두 2008년 이후의 논문이었다.

#### 3) 참고문헌 미구축

KCI는 6건 모두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고, 네이버는 293건 중 220건은 참고문헌 자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다. 73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된 것으로 전부 2008년도 이후 발행된 논문이다.

#### 4) 참고문헌 구축 오류

네이버 2건 모두 참고문헌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KCI의 1건은 논문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링크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였다.

역사학 분야의 인용빈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KCI의 경우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 논문 미수록, 참고문헌 미구축 순이고, 네이버의 경우 2008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미구축과 논문정보 미수록, 인용산출누락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구축 및 기타오류는 각DB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3.2.3 언어학

1) 논문정보 미수록

KCI는 22건 모두 수록저널의 일부호가 누락된 경우이고, 네이버는 30건 중 24건은 수록학술지의 일부 누락, 6건은 학술지 자체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용산출누락

KCI의 경우 전체 68건 중 56건은 2007년 이전 논문이었고, 12건은 2008년 이후 논문이었다. 네이버는 10건 모두 2008년 이후의 논문이었다.

3) 참고문헌 미구축

KCI는 39건 모두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고, 네이버는 151건 중 115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았고, 나머지 36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된 경우였으며, 전부 2008년도 이후의 논문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구축 오류

KCI 3건, 네이버 3건 모두 참고문헌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네이버 3건 중 2건은 조사대상 논문의 인용정보가 각각 2건으로 구축되었지만 검색으로는 1건만 검색되는 경우였다. 나머지 1건은 논문 제목이 잘못 입력되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학 분야의 인용빈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KCI의 경우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 참고문헌 미구축, 논문정보 미수록 순이고, 네이버의 경우 2008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미구축, 논문정보 미수록, 인용산출누락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구축 및 기타오류는 각DB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3.2.4 영문학

1) 논문정보 미수록

KCI는 8건 모두 수록학술지의 일부호가 누락된 경우이고, 네이버도 25건 모두 수록학술지의 일부 호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용산출누락

KCI 49건 중 35건은 2007년 이전 논문이었고, 14건은 2008년 이후 논문이었다. 네이버는 109건 중 108건이 2008년 이후의 논문이었고, 나머지 1건은 2007년 논문이었다.

3) 참고문헌 미구축

KCI는 14건 모두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였다. 네이버는 134건 중 104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았고, 나머지 30건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논문들

은 전부 2008년도 이후의 논문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구축 오류

KCI 3건, 네이버 3건 모두 참고문헌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학 분야의 인용빈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KCI의 경우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 참고문헌 미구축, 논문정보 미수록 순이고, 네이버의 경우 2008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미구축, 인용산출누락, 논문정보 미수록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구축 및 기타오류는 각 DB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각 주제 분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논문의 인용빈도가 차이가 나는 주원인은 KCI의 경우 '인용산출누락'이었고, 누락 사유의 대부분이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미구축', '논문정보 미수록'은 각각 그 다음을 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참고문헌 미구축'이 가장 많았으며 미구축된 문헌은 모두 2008년 이후 발행된 논문으로 나타났다. '인용산출누락', '논문정보 미수록'은 각각 그 다음을 이었다.

## 4. 인용 DB의 인용정보 구축 문제점

### 4.1 학술지 수록의 불완전성

#### 4.1.1 학술지 수록 범위

네이버의 경우 KCI의 등재/후보학술지를 수록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KCI와 수록범위가 다른 부분이 많았다. 학술지 전

체 또는 일부 권 호의 누락, 학술지 등재 여부 오류 표기 등 수록 학술지의 오류가 많았고 수록 범위가 완전하지 않았다. 수록된 학술지의 검색에 있어서도 가나다순으로만 나열하여 구축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KCI의 경우 수록된 학술지 목록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옵션을 제공하며, 수록 정보도 비교적 정확하게 구축하였지만 학술지 일부 권 호의 누락 등 수록된 학술지 범위가 완전하지 않았다.

논문의 수록 범위의 불완전성은 해당 인용DB의 피인용횟수, 그리고 이들을 가공하여 활용하는 인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각 인용DB 모두 보다 완전한 범위의 문헌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네이버는 수록자료의 구축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1.2 서지정보의 오류

두 인용DB 모두 수록 논문의 서지정보 오류가 종종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열린정신 인문학연구"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으로 입력되어 원 학술지명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되지 않았다. KCI에서는 "한국어 쓰기 오류 교정에서 오류일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의 오류일지의 효과"로, "문학 작품의 어휘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법 연구"가 "문학 작품의 어휘를 통한 한국 언어문화 학습 방법 연구"로 입력되어 있었다. 구축된 인용정보의 식별과 검색의 정확성을 위해 두 인용DB 모두 서지정보 입력의 오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4.1.3 주제 분류

네이버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로 학술지의 주제 분류 문제로서 동일저자의 형태가 다른 문헌이 서로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의 과학 수업 비평관점에 관한 연구”의 경우 학술지로 발행된 논문은 자연과학으로 분류되었고, 학위논문으로 발행된 논문은 교육학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네이버는 ‘학제간 인용현황’과 같은 인용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 주제에 속하는 문헌이 서로 다른 주제 분야로 분류될 경우, 제공정보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의 경우 수록자료의 형태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지 않도록 수록 자료의 주제를 구분함에 있어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

## 4.2 참고문헌 구축의 불완전성

### 4.2.1 참고문헌 구축 현황 및 차이

조사대상 논문의 참고문헌 구축에서도 인용 DB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일 논문의 참고문헌 구축 건수가 두 인용DB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였다.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논문 256건의 원문을 입수하여 원문의 참고문헌과 두 인용DB에서 구축

한 참고문헌을 대조하였다.

조사대상 문헌의 참고문헌 구축은 <표 11>과 같이 참고문헌은 네이버 5,077건, KCI 4,596건으로 네이버가 481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 분야에서도 역사학을 제외한 국어국문학, 언어학, 영문학에서 네이버의 참고문헌 구축 건수가 많았다. 참고문헌 구축이 누락된 원인은 <표 12>와 같이 국어국문학, 언어학, 영문학 등 3개 주제에서 참고문헌 미구축, 일부누락 순으로 나타났다. KCI의 역사학 분야는 일부누락, 참고문헌 미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현 조사시점기준으로 동일논문의 참고문헌 구축 건수가 각 DB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조사 대상 논문의 참고문헌 자체를 구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참고문헌 구축과정에서 일부 참고문헌이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피인용 논문의 참고문헌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피인용 논문의 참고문헌에서는 네이버의 경우 2008년 이후 발행된 논문의 참고문헌 미구축, KCI의 경우 2007년 이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 연결문제, 그리고 참고문헌 미구축 문제가 주로 발견되었다. 참고문헌의 구축에 있어서는 비교적 구축된 건수가 많고, 입력 내용의 오류가 적은 네이버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주제별 참고문헌 구축 현황

(단위: 건)	원문 참고문헌	참고문헌 구축		참고문헌 누락	
		KCI	네이버	KCI	네이버
국어국문학	2,433(100%)	1,428(59%)	2,092(86%)	1,005(41%)	341(14%)
역사학	1,189(100%)	981(83%)	544(46%)	208(17%)	645(54%)
언어학	1,376(100%)	880(64%)	985(72%)	496(36%)	391(28%)
영문학	1,590(100%)	1,307(82%)	1,456(92%)	283(18%)	134(8%)
합계	6,588(100%)	4,596(70%)	5,077(77%)	1,992(30%)	1,511(23%)

〈표 12〉 조사 대상 논문의 참고문헌 누락 사유

(단위: 건)	합계		국어국문학		역사학		언어학		영문학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KCI	네이버
일부누락	382	44	122	0	184	2	26	42	50	0
미구축	1,511	1,465	799	339	15	643	470	349	227	134
기타	99	2	84	2	9	0	0	0	6	0
합계	1,992	1,511	1,005	341	208	645	496	391	283	134

기본적으로 어느 한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잘못 구축되었다는 것은 다른 논문의 피인용횟수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인용DB 모두 보다 완전한 참고문헌을 구축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수집과 관련한 정책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4.2.2 참고문헌 중복, 오류 구축

KCI의 경우 일부 사례(예: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에서 동일 참고문헌이 2건씩 구축된 경우가 있었으며(〈그림 1〉 참조), 투고 관련 설명글 등이 참고문헌으로 입력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예: “국어 단어의 음소 분포”, 〈그림 2〉 참조).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성기철)을 인용한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해당 논문이 아닌 인용한 논문과 동일 논문명의 다른 저자 논문인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황인교)으로 잘못 링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동일 학술지 또는 논문이 2건 이상 검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인용지수, 인용된 논문 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또한 각각의 인용정보가 다른 동일 논문이 2건 이상 검색되거나, 실제로는 2건이 있지만 검색으로는 1건만 나타나는 경우

가 있었다(〈그림 4〉 참조). 실제 원문에 입력되지 않은 참고문헌이 입력되어 있는 사례는 일부 발견 되었으나(“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수업-공지영의 『꿈』을 중심으로” 등) 그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았다. 네이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는 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인용된 횟수”와, “본 논문을 인용한 논문” 목록에 나타나는 인용횟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논문 목록이 “인용된 횟수”보다 1건 적게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일부 참고문헌에서 원문의 자체의 오류가 있는 경우 KCI는 오류사항 그대로 입력되었지만, 네이버는 수정하여 입력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24. 이영제 / 2009.10 구적 관용어의 통사적 구성과 의미 - NV형 관용어를 중심으로 /
25. 임근석 / 2009.11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문법적 언어 후보 추출 / 한국어학 / 45 :
26. 임근석 / 2009.12 문법적 언어와 한국어 교육 - 조사적 언어를 중심으로 - / 한국
27. 이호승 / 2009.12 'NP-를 NP-로 하다' 구문의 유형과 특성 / 개신어문연구 / (30)
28. 배주채 / 2009.12 '달라, 다우'의 어휘론 / 國語學 / (56) : 191 ~ 221
29. 유해준 / 2010.03 언어적 구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구성 방안 / 어문론집 /
30. 유해준 / 2010.03 언어적 구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구성 방안 / 어문론집 /
31. 이정현 / 201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교육 양상 연구 -연세대 교재 분석을 중
32. 이정현 / 201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교육 양상 연구 -연세대 교재 분석을 중
33. 임근석 / 2010.08 국어 비어적 언어의 필요성과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 / 한국어학
34. 조은영 / 2010.08 어휘적 언어의 형성과 유추 / 한국어학 / 48 : 299 ~ 331
35. 이경선 / 2010.08 한국어 교육에서 의존명사에 의한 문법적 언어 연구 / 언어과학
36. 김서영 / 2010.10 인본어권 한국어 하스자를 위한 어휘적 언어 하스 방안 / 이주어

〈그림 1〉 참고문헌 중복 구축(KCI)

이 논문에 참고문헌이 21건 있습니다.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일 / 1985 / 한국어 음절구조에 관한 통계분석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진 / 1974 / 음운변화와 음소의 분포 / : 105 ~ 1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규 외 / 1997 / 한글 사용빈도의 분석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윤진 / 2000 /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 언어학적 연구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주채 / 1989 /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태문 / 1996 / 국어 어미의 음소 목록과 음운사 / : 323 ~ 34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철의 / 1990 /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 : 20 ~ 32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익 / 2002 / 계량언어학연구 /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익 / 2001 / 국어의 이음 음소와 자모의 출현빈도 조사 대비 및 분석 /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실성 외 / 1997 / 한국어 계량연구 /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Greenberg / 1978 /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Hooper / 1976 /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Kessler / 1937 / Syllable Structure and the Distribution of Phonemes in t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Kupua / 1971 / The phonotactic structure of the morph in Polynesian lan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s / 1965 / A Statistical Linguistic Analysis of American English /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The Haue / 1982 / Selected Papers in Structural Linguistics /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Bloomington / 1966 / The Linguistic School of Prague /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Zipf / 1965 /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
19.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이 논문은 2006년 1월 31일 무고 완료되어 /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 / 2006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
21. [학술지(정기간행물)] - / / 2006년 3월 1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2차 결정본 논문임 /

<그림 2> 참고문헌 오류 구축(KCI)

인용문헌검색 [X] '어문연구'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학술자료 (1-10 / 3,706건)

원문보기  유료  무료  로그인

정확도  최신순  인용순

[학술지] **어문연구**  
 발표논문 : 2,825 | 인용인원수 : 1,705 | 자기인원  
 주요키워드 : 한국어, 시, 소설, 어학교과, 한자, 국어교육학 | 관련학술지 : 어문연구

[학술지] **국어이론연구**  
 발표논문 : 726 | 인용인원수 : 1,294  
 주요키워드 : 한국어, 소설, 시, 국어, 한국문학, 언어학 | 관련학술지 : 보건의학연구, 서울대학교

[학술지] **어문연구**  
 발표논문 : 1,245 | 인용인원수 : 771 | 자기인원  
 주요키워드 : 시, 소설, 한국어, 고전문학, 행정실 국어교육학 | 관련학술지 : 한국어문학연구

<그림 3> 학술지 중복 구축 사례(네이버)

인용문헌검색 [X]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학술자료 (1-10 / 11건)

원문보기  유료  무료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 처리

정확도  최신순  인용순

[학술논문]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2007년 | 인용인원수(132)  
 ... 대학 글쓰기(대학 글쓰기 교육의 역할, 대학 글쓰기)에서 토론 교육의 역할에 관한 실론 : 동  
 Current essay writing education...  
 국어교육학 | 구지창 | 어문연구학회 / 어문연구 (KCI 등재 [X])  
 ☞ 교보문고(유료) |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282건)

[학위논문(석사)] **학문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역할 표현과 증명 표현의 결합 패턴**  
 ... 학문 목적 학술지들은 대학에서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고 학습활동을 해야 하므로 수  
 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먼저 쓰기 교육 이론을 살펴보고, 학문목적...  
 종류 : 류수영 | 경희대학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무료/로그인)

기타사회학

대학 '읽기-쓰기' 강좌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

A Study of Student's Needs on a Reading and Writing Course in a General Education Program

저자명 : 이명실  
 문서유형 : 학술논문  
 발표연월 : 44년  
 인용인원수 : 0건

학술지 : 특사연구 vol.19 no.1 (2009년 5월) pp.279-306 1596-9607 KCI  
 발행일자 : 한국언어학회 | 2009년 | 한국 | 한국어  
 주요키워드 : 사회과학 | 기타사회학 | DBPIA  
 서지링크 : 국회도서관 (청구번호 008 > 327) | NACIDION

자료제공 : 한국언어학회 DBPIA

원문 다운로드  원문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 학교도서관 권역도서관

3월 24일 16:00  
 V. 원문파일 21  
 참고문헌 22  
 열람 정보 25  
 주제 26  
 Abstract 28

참고문헌 (282건)

1.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2007년 | 인용인원수 132  
 2. 대학 글쓰기(대학 글쓰기 교육의 역할, 대학 글쓰기)에서 토론 교육의 역할에 관한 실론 : 동  
 Current essay writing education...  
 국어교육학 | 구지창 | 어문연구학회 / 어문연구 (KCI 등재 [X])  
 ☞ 교보문고(유료) |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282건)

<그림 4> 동일 논문 중복 구축(1건 검색, 1건 미검색 사례) (네이버)

국어교육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저자명 : 원진숙, 민병곤  
 문서유형 : 학술논문  
 참고문헌 : 11건  
**인용인원수 [X] 162건**  
 학술지 :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2007년 12) pp.23  
 발행정보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2007년 |  
 주제분야 : 교육 > 국어교육 | 인문  
 서지링크 : 국회도서관 (청구번호 411.04 > 428)

본 논문을 인용한 논문 (152건)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 국어학, 한국어교육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조
-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육 제재로서 전래동화가 가지는 이점에 대
-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입장벽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 언어복지
-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발단
-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그림 5> 인용인원수 표시 오류 (네이버)

## 5. 결론 및 제언

인용정보원으로서의 인용정보 구축에 관하여 인문학분야에서는 두 인용DB에 관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KCI는 전반적으로 네이버보다 높은 인용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인용횟수의 재현율은 네이버 64%, KCI 77%로 KCI가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학술지와 논문의 서지정보의 입력사항 오류는 비교적 적었지만, 그 수록 범위는 다소 불완전하였다. 수록 학술지와 논문 수는 네이버보다 적었으며, 참고문헌 구축 오류가 많았다. 참고문헌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링크가 연결되지 않아 인용산출에 누락된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2007년도 이전 발행된 논문이었다.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KCI보다 좀 더 정확한 참고문헌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의 재현율은 네이버 77%, KCI 70%로 네이버가 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학술지와 논문의 서지정보와 수록 범위는 비교적 불완전하였으나 KCI보다 수록 학술지와 논문 수는 많았으며, 학술지 이외의 자료도 수록하고 있어 수록 범위 및 형태의 포괄성은 더 넓었

다. 2007년 이전 논문의 참고문헌은 대부분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지만, 2008년도 이후 발행된 논문의 대부분은 참고문헌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논문의 중복구축, 링크오류 등의 이유로 피인용횟수가 부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수록문헌이 포괄성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자료의 정확성은 KCI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록범위의 불완전성, 서지정보의 오류, 참고문헌 구축의 불완전성, 링크와 관련된 오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인용DB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인문학분야의 인용산출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인용산출을 위해 각 인용DB 모두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용빈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인용DB 전체로 보았을 경우, KCI가 네이버보다 다소 높은 재현율을 보여 KCI가 좀 더 정확한 인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주제 분야 또는 논문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서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인용DB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인문학분야에서 보다 완전한 인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관준, 이재운 (2010). 학술지 영향력 측정을 위한 h-지수의 응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69-287.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269>
- 김홍렬, 정경희 (2005). 국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2(2), 23-39.

- 네이버. 네이버전문정보. [cited 2012.11.15]  
Retrieved from [http://academic.naver.com/info.nhn?dir\\_id=1](http://academic.naver.com/info.nhn?dir_id=1)
- 이재운 (2011). 국내 인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저널 페이지랭크 측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361-379.
- 이정연, 유소영, 이재운 (2010). 인용정보를 활용한 학술정보서비스 고도화 전략. *정보관리연구*, 41(1), 43-67.
- 이중욱, 양기덕 (2011). 교수연구업적 평가법의 계량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4), 119-14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119>
- 한국연구재단. KCI. [cited 2012.11.15]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
- 허선, 이춘실 (2005).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와 KCI(Korea citation index)의 2004년도 영향력지표값 비교분석. *정보관리연구*, 36(3), 183-193.
- Ball, R., & Tunger, D. (2006). Science indicators revisited: Science Citation Index versus SCOPUS: A bibliometric comparison of both citation databases. *Information Service & Use*, 26(4), 293-301.
- Bauer, K., & Bakkalbasi, N. (2005). An examination of citation counts in a new scholarly communication environment. *D-lib Magazine*, 11(9).  
Retrieved from <http://www.dlib.org/dlib/september05/bauer/09bauer.html>
- Bergman, E. M. L. (2012). Finding citations to social work literature: The relative benefits of using Web of Science, Scopus, or Google Scholar.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8(6), 370-379.
- Choi, S.-H., Kim, B.-K., Kang, M., You, B.-J., Lee, J., & Park, J.-W. (2011). A study of citing patterns of Korean scientists on Korean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97-115.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2.097>
- Kim, B.-K., Kang, M., Choi, S.-H., Kim, S.-Y., You, B.-J., & Shin, J.-D. (2011). Citing behavior of Korean scientists on foreign journals in KSC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117-133.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2.117>
- Levine-Clarka, M., & Gil, E. L. (2008). A comparative citation analysis of Web of Science of Science, Scopus, and Google Scholar.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4(1), 32-46.
- Levine-Clarka, M., & Gil, E. L.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sciences citation tools. *Online Information Review*, 33(5), 986-996.
- Meho, L. I., & Yang, K. (2007). Impact of data sources on citation counts and rankings of LIS faculty: Web of science versus scopus and google schola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3), 2105-2125. <http://dx.doi.org/10.1002/asi.20677>  
Norouzi, A. (2005). Google Scholar: The new generation of citation indexes. *Libri*, 55(4), 170-180.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Huh, Sun, & Lee, Choon-Shil (2005). Comparative analysis of KoMCI 2004 and KCI 2004 impact factor.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3), 183-193.
- Kim, Hong-Ryul, & Joung, Kyoung-Hee (2005). An analysis on the operations of reference databas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2), 23-39.
- Kim, Pan-Jun, & Lee, Jae Yun (2010). A study on journal impact measurement with Hirsch-type ind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69-287.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269>
- Lee, Jae Yun (2011). Journal Page Rank calculation in the Korean Science Citation Databas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361-379.
- Lee, Jong-Wook, & Yang, Ki-duk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f faculty research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119-14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119>
- Lee, Jung-Yeoun, Yu, So-Young, & Lee, Jae Yun (2010). Strategy for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 using citation information.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1), 43-67.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CI. [cited 2012.11.15]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
- NAVER. NAVER Scholar. [cited 2012.11.15]  
Retrieved from [http://academic.naver.com/info.nhn?dir\\_id=1](http://academic.naver.com/info.nhn?dir_id=1)